미공군 사령관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군산 미공군 사령관 귀하

지난 1998년 1월20일 군산 미공군 기지내 616 빌딩앞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한국국민과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분노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어려운 사정과 여러가지 정황을 미루어 이번 위조지폐 사건은 한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만한 중대한 문제였고 더욱이 위조지폐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만원권 이었다는 것과 한차례도 아닌 수차례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점은 이미 목적 자체가 이미 한국의 법질서를 파괴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미군 당국이 불구속 시킨 것은 한·미 행정협정을 떠나 한국정부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였다는 점과 국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미군 사령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됨에도 미군 사령관은 이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항간에 이 피의자에 대해 본국송환을 통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95년 4월13일 서울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리가 실형 8개월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 미국으로 도주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이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군산 미공군 사령관에게 다음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미공군 사령관은 위조지폐 범죄에 대해 사과하라.

2. 미공군은 위조지폐 피의자가 한국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위조지폐 피의자에 대한 본국 송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만약 위 요구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자국민 모호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공동대표 : 한상렬,한지원,염경석,고흥석)